

‘국내파’ 김아림, US여자오픈 우승...첫 출전에 정상까지

US여자오픈 첫 출전 선수 우승 김아림 5번째

마지막 라운드서 놀라운 뒷심 발휘 역전 우승

김아림(25)이 첫 출전한 US여자오픈(총상금 550만 달러)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김아림은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 사이프러스 크리 코스(파71·6731야드)서 열린 제75회 US여자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7타를 쳤다. 함께 3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김아림은 2언더파 282타를 적어낸 공동 2위 고진영, 에이미 울슨을 따돌리고 정상을 차지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김아림은 상금 100만 달러를 받았다. 김아림은 이번이 US여자오픈 첫 출전이다. 출전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얻을 수 있었다. 지역 예선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랭킹 50위까지만 주던 출전

권을 75위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출전권을 확보한 지난 7월 김아림의 세계랭킹은 70위였고, 현재는 94위다.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는 두 차례 우승을 경험했다. 이번 시즌 우승은 없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나선 US여자오픈에서 정상까지 올랐다. US여자오픈에 첫 출전한 선수가 우승한 건 김아림이 역대 5번째다. 앞서 패티 버그(1946년), 캐시 코닐리어스(1956년), 김주연(2005년), 전인지(2015년)가 첫 출전에서 정상이었다. 한국 선수가 이 대회 우승자로서 이름을 올린 건 통산 11번째 우승이다. 박인비가 두 번 우승해 US여자오픈에서 정상을 경험한 한국 선수는 김아림이 10번째다. 김아림은 1라운드에서 3언더파로 공동 2위의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하

지만 2라운드에서 3오버파에 그치며 공동 20위로 떨어졌고, 3라운드까지 1오버파로 공동 9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약천후로 하루 순연돼 열린 이날 마지막 라운드 경기에서 놀라운 뒷심을 발휘하며 역전 우승까지 완성했다. 김아림은 이날 5~6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작성하고, 8번 홀에서도 버디를 낚아 역전극의 발판을 닦았다. 10~11번 홀에서 보기로 흔들렸지만 16~18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몰아쳐 승기를 잡았다. 3라운드를 마치고 시부모상을 당한 울슨은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벌였지만, 16번홀에서 빼야 본기를 범해 고개를 숙였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도 이날 3언더파 68타를 치며 선전했지만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3라운드까지 선두를 지키던 시부노 하야코는 이날 3오버파74타를 적어내며 4위로 대회를 마쳤다. 박인비와 이정은6은 2오버파 286타로 공동 6위에 자리했다. 이민영2는 공동 11위(4오버파288



미 여자 프로골프(LPGA)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김아림이 14일(현지시간) 우승컵에 입맞추고 있다. 김아림은 첫 출전한 LPGA 대회에서 5타 차이를 뒤집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타), 김세영은 공동 20위(6오버파290 타)에 랭크됐다. 뉴스



1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월드컵경기장 종합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FC 선수들이 구단 개선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하기 앞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FC 구단주·여름 주장 “구단 내부문제로 실망 안겨드려 죄송”

이용섭 광주시장 “선수들은 잘못없다”

창단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프로축구 광주FC가 구단 내부문제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구단주 이용섭 광주시장과 선수단 주장 여름이 팬들에게 사과했다. 이용섭 시장은 1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월드컵경기장 종합회의실에서 열린 ‘시장·광주FC 선수단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구단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대표와 감독까지 공격이 되는데 대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 그동안 광주FC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감독과 선수단이 똘똘 뭉쳐 지난해 1부리그 승격과 올해는 창단이후 최고 성적인 6위의 성과를 냈다”며 “코치와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

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내부의 갈등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고 부득이하게 일부는 수사의뢰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건 선수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여기에 박진섭 감독이 자리를 옮기게 됐고 일련의 사태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대표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이다”며 “구단주로서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휴가 기간 중이지만 구단주로서 선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광주FC의 주인은 선수들인데만큼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

탁했다. 광주FC 주장 여름도 모두 발언을 통해 “광주FC가 올시즌을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마쳐 팬들의 칭찬을 받아 즐거웠는데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구단 내부의 문제로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최근들어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해지는 것 같아 모든 선수들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불미스런 사건을 교훈삼아 광주FC가 한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FC는 지난해 1부리그 승격 뒤 올시즌 파이널A까지 진출해 지난 2010년 창단 10년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광주FC는 기영욱 전 단장이 구단총장에서 돈을 빌린 뒤 상환해 횡령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으며 직원들은 수당 부당수령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가 사임했으며 단장은 대행체제, 박진섭 감독은 타구단으로 이적해 수장이 모두 공석 상태다. 김미희기자

KIA 재계약 최형우, 또 FA 대박...3년 총액 47억원

KIA타이거즈 토종 거포 최형우(37)가 또 다시 FA 대박을 터뜨렸다. KIA는 14일 최형우와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금 13억원, 연봉 9억원, 옵션 7억원 등 총액 47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4년 전 100억원(4년 기준)짜리 계약서에 사인한 KBO리그 최초의 선수가 된 최형우는 다시 한 번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최형우는 올 시즌 140경기에서 타율 0.354, 28홈런 185안타 115타점 93득점을 기록했다. 타율 1위, 타점과 안타 4위다. KIA 4년 통산 기록은 561경기에 출전, 타율 0.335, 677안타 96홈런 424타점이다. 최형우는 “구단의 배려에 감사하

다. 무엇보다 KIA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나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지와 체력이 중요한 만큼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내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참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최고의 팀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 다시 한 번 우승의 영광을 안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좋은 성적으로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보탰다. KIA측은 “기량은 말할 것도 없고 동료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등 그라운드 안팎에서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선수와 다시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여러모로 팀 전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김민정기자

‘거포 갈등 해결·수비 안정’ 삼성이 오재일에 거는 기대

홍준학 삼성 단장 “6차례 만났고 매일같이 통화...영입에 공들였다”



삼성 라이온즈가 FA 오재일(오른쪽)과 계약했다. 사진은 오재일과 원기찬 삼성 대표이사.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오랜만에 외부 자유계약선수(FA) 영입을 위해 지갑을 연 삼성 라이온즈가 오재일(34)에 거포 갈등을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동시에 수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삼성은 14일 오재일과 4년 최대 5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세부 조건은 계약금 24억원, 연봉 6억·2023~2024년 각 5억원, 인센티브 4억원(매해 1억원)이다. 삼성이 외부 FA를 영입한 것은 2017년 11월 포수 강민호와 계약한 이후 3년 만이다. 지난달 29일 FA 시장이 막을 올렸을 때부터 삼성은 오재일 영입에

공을 들였고, 결국 오재일의 마음을 붙잡는데 성공했다. 홍준학 삼성 단장은 “오재일 측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6차례 정도다. 통화는 매일 같이 했다”며 “영입을 위해 여러모로 공을 많이 들였고, 계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삼성이 이같이 오재일 영입에 힘을 쏟은 것은 거포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삼성은 최형우가 KIA 타이거즈로 떠난 이후 토종 거포 부재에 시달렸다. 2017~2019년 중심타선을 책임졌던 외국인 타자 다린 러프가 떠나면서 특히 올 시즌에는 거포 부재로 골치를 앓았다. 토종 타

자 중에 4번 타자감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타자 친화적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의 이점도 살리지 못했다. 올 시즌 삼성은 팀 홈런 129개로 7위, 장타율 0.394로 8위에 머물렀다. 삼성은 정규리그 8위에 머물러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오재일은 통산 102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3 147홈런 583타점을 기록한 리그 정상급 거포다. 국내에서 가장 큰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면서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20개 이상의 홈런을 쳤다. 올 시즌에는 127경기에서 타율 0.312 16홈런 89타점에 0.482의 장타율을 기록했다.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통산 27경기를 뚫은 오재일은 타율 0.320 12홈런 33타점으로 강한 면모를 뽐냈다. 삼성라이온즈파크 통산 장타율이 0.699에 달한다. 허삼영 삼성 감독은 “장타와 수비 쪽에서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재일이 중심타선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중심타선에 배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삼성이 오재일에 기대하는 것은 단지 공격 뿐만이 아니다. 수비 안정화가 오재일 영입 이유 중에 하나라고 홍 단장은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통산 218홈런 추신수, 선수 생활 내내 꾸준” MLB닷컴

218홈런 추신수 한국 출신 1위...2위는 강정호

‘코리아 메이저리거’ 추신수(38)가 한국 출신 중 빅리그에서 최다 홈런을 기록한 선수로 메이저리거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됐다. MLB닷컴은 15일(한국시간) 국가별 메이저리거 통산 홈런 1위 선수를 정리했다. 통산 218개의 홈런을 친 추신수는 한국 출신 최다 홈런 타자로 명단에 포함됐다. 2위는 46홈런을 터뜨린 강정호다. 매체는 “부산에서 태어난 추신수는 메이저리거에서 주로 우익수와 지명

타자로 뛰며 16시즌을 보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선수 생활 내내 생산적인 활약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이어 “한 시즌에 30홈런 이상을 때려낸 적은 없지만, 2019년 커리어하이인 24홈런을 치는 등 꾸준히 몇 년 동안 20홈런 이상씩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추신수는 2006시즌 중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이적한 뒤 첫 홈런을 쳤다. 2008년 주전으로 올라서며 14년의

아치를 그렸고, 2009년 20홈런, 2010년 22홈런으로 잠재력을 터뜨렸다. 30대에 접어들어 추신수의 활약은 계속됐다. 2013년 신시내티 레즈에서 21홈런을 작성했고,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고서도 2017~2019년 3년 연속 20홈런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모습을 보였다. 2020년에는 33경기에 출장하면서 5차례 손맛을 봤다. 추신수는 아시아 선수를 통틀어서도 메이저리거 최다 홈런 기록 보유자다. 뉴스